

1. 개요

1. 일시 : 2017.01.11 (수) 16:00~18:00

2. 장소 : KIEP 333호 회의실

3. 발표자 : 김지희 교수(KAIST)

4. 참석자

김경훈 박사	(KIEP 간사)	안성배 팀장	(KIEP)
김효상 박사	(KIEP)	한민수 박사	(KIEP)
남시훈 박사	(KIEP)	정재욱 박사	(KIEP)
김원기 박사	(KIEP)	현상백 박사	(KIEP)

5. 제목

- "The Effect of the Top Marginal Tax Rate on Top Income Inequality"

II.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본 연구는 상위 1% 소득에 초점을 맞춤.

- ① 상위 1% 소득이 증가된 현상, ② 1%내 소득불평등이 증가된 사실(상위 1% 소득자 중에서도 상위 0.1% 소득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함), ③ 이러한 현상이 지난 50년간 서서히 감소한 한계세율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 지에 대해 연구함.
- 상위 소득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 상위 1%가 전체 정부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

□ 위 ①과 ②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핵심은 인적자본의 축적과 그 특성에서 기인.

- 기존연구에서는 skill-biased 기술개발, globalization, 기업규모의 확대, 금융부문 확대 등으로 위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생적 요인보다는 상위 1% 소득자의 인적자본 축적과 그 특성으로 위 두 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임.
- 상위 1% 소득자, 그 가운데에서도 0.1% 소득자의 인적자본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계세율임. 따라서 ①과 ②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의 이론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바로 인적자본의 축적이며,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한 것은 바로 ③의 한계세율임.

□ 위 두 현상을 이론모형으로 설명.

- 가장 핵심적인 가정은 상위 1% 내 소득자는 Pareto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며 이 Pareto 분포는 두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되고 Fractal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상위 1% 어떤 분포에서 시작하든, 새로운 steady state에서는 한계세율이 감소하는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 상위 1% 소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1% 내에

서도 0.1%의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위 ①과 ② 현상을 이론모형으로 구현해 낼 수 있음.

III. 주요 논의사항

- 상위 1% 소득자의 labor effort(본 연구의 이론모형에서는 근로시간 대신 labor effort가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1% 상위소득자의 인적자본과 그 축적의 구체적 예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다면 현실경제에 대응되는 모형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Pareto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두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상위 1% 소득자의 최소 소득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해석하고 현실경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1% 소득자 그룹으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현상을 내생화한다면 현실경제를 더 잘 반영할 뿐 아니라 모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1% 소득의 증가와 1% 소득불평등 현상을 외부적 요인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 소득자 소득분포에 대한 Pareto 분포 가정과 실제 한계세율이 감소한 현상만으로 실제 데이터에서 관측되는 현상으로 이론모형으로 재현해 냈다는 것임.
 - 하지만 어찌면 세율변동보다는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가 상위 1% 소득자와 그들 내부의 인적자본 형성 속도에 차이를 가져와서 ①과 ② 현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예를 들면,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정보의 규모 및 유통이 크게 발전된 부분)
- 김지희 교수의 다른 관련 연구에서는 Pareto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또 다른 파라미터인 η 에 주목함. 이 연구에 따르면 η 가 커지면 상위 1% 소득자간 불평등이 확대되는데,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자의 인적자본 축적의 노력과 1% 그룹 내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는 비율로 결정됨을 보임.